

사천지역의 서진회관과 문화경관 특징

이행렬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회관(會館)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동향인들이 체류하며 모임을 가지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장소인 회관은 명·청대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이다. 회관에는 사당, 희원(戲院), 서원, 여관, 식당, 다실 등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복합적 공간이다. 또한 회관은 타지에서 동향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직화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회관은 타지 문화를 현지에 재현함으로써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마드형 인간' 중심의 이동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문화경관의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천지역에 발생하고 발달해 온 사천회관의 발생 배경, 회관의 유형, 회관의 기능, 회관건축의 문화경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중국 사천성 자공시에 있는 서진회관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회관건축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회관건축과 원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현지조사에서는 회관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적 특징, 원림의 공간적 특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천회관의 시대적 발생 요인

명 영종(1436~1449, 1457~1464)이 토목보의 변(1449)을 당한 이후 북로남왜의 침입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금나라(1115~1243) 멸망이후 중국의 동북면에 산재해 있던 만주 여진족이 누루하치의 영도하에 점차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반면 명은 대내적으로 환관 위충현(魏忠賢, ?~1627)의 발호, 동림·비동림당의 파쟁, 백련교도 반란 등과 같은 민변과 항조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였다. 더욱이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 요동의 해항을 근거로 활약하던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 상가희(尚可喜) 등이 연이어 청군에 투항하였다. 청의 순치제(1644~1661)는 오삼계를 앞세워 반란군의 잔당과 남경의 복왕, 복건의 당왕, 계림의 계왕과 명 유신들의 복명운동을 차례로 진압하여 정복왕조를 재현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적지않은 유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천에 대량의 유민이 집중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사천지역은 '도축(屠蜀)'이라 할 정도로 처참하게 인적, 물적 피해를 겪고 난 후 주인 없이 버려진 땅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향에서 떠나 온 유민들이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둘째로는 청초가 사천이주를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관료들에게 유민초무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토착인이든 객민이든 개간한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거나, 일정기간 세금 징수를 면제해 주고, 사천에서 납세하는 객민의 자제를 토착인과 동등한 학교 응시 자격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자연환경의 척박함과 홍수와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기근 발생이 이들 유민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사천으로 유입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천으로 유입된 유민들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유출시킨 지역은 광둥, 복건, 강서의 순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광둥지역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욱 극심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2. 사천회관의 유형과 기능

1) 유형

일반적으로 사천회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이민형 회관과 공상구락부형 회관으로 나누는데 그 차이점은 단순히 이민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세운 것인지 또는 이민자들의 친목과 함께 상업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인지에 달려 있다. 이민형 회관의 발생 배경은 앞에서 언급하듯이 청초에 각 성에서 사천지역으로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호광, 강서, 복건, 광둥 등지의 회관이 사천 각 지역에 퍼지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공상구락부형 회관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동향의 상인들이 클럽을 결성하면서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은 해외이민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인 특유의 지역성에 근거한 결집력의 근원이 된다.

2) 기능

사천회관 또는 중국의 회관이 갖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즉 “영신휴(迎神庥)”, “연가회(聯嘉會)”, “양의거(襄義學)”, “독향정(篤鄉情)” 기능이다. 영신휴 기능은 여행 등과 같은 출타시 조상신 또는 각종 신으로부터 신령한 보호를 구하는 기능으로 ‘관우’, ‘우왕’ 또는 각 지방의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기능이다. 연가회는 고향의 우의를 다지고 고향의 신을 제사하는 기능으로 동향인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다. 양의거는 의로운 행위 또는 사회구제사업 등과 같은 자선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이며, 독향정은 타향에서 동향인 또는 고향사람을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기능이며 더 나아가서 상업활동에 있어서 연대감에 의한 상부상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사천 자공(自貢) 서진회관(西秦會館)과 문화경관

1) 자공 서진회관의 배경

자공은 사천분지 남부에 위치하며 그 땅은 파촉 사이에 있는 천년염도로 알려진 곳이다. 자공이 염도(鹽都)로 유명하게 된 것은 동한 장제(章帝)시기(76~88년) 부터이며 명청시기에 와서 발전하였으며, 청 옹정시기에 사천 5대 정염(井鹽) 생산지 중의 한 곳으로 이름을 날렸다. 가경과 도광때에는 사천 3대 정염 생산지 중의 한 곳이 되었으며, 함풍과 동치년간에는 더 발전하여 사천 염업생산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섬서상인이 강희년간부터 자공염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관념이 극히 강한 섬서(陝西)의 기질, 즉 “資本厚, 精心計(자본은 후하나 계산은 치밀하다)” 하는 것이 잘 발휘되었

다. 청 강희20년(1681년), 조정에서 귀주의 전체 성과 운남의 일부 지역에서 식천염(食川鹽)을 팔수 있는 상업활동을 허가하였으며, 자공지역에서는 운남성과 귀주성에 소금을 운송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하였다. 더우기 섬적(陝籍) 상인들은 자공에서 사설 금융업을 개설하였으며 점차 이곳의 금융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옹정연간에 이르러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였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객적(客籍) 상방(商幫)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방(行幫) 조직을 기획하였으니 그것이 “서진대회(西秦大會)” 였다.

옹정 10년(1732년) 서진대회가 열렸던 용봉산좌(龍鳳山座)의 주인인 이광화(李光華)가 은 380량에 매입하여 묘우를 건설하였다. 건륭원년(1736년)에 서진회관을 기공하였으며, 건륭17년(1752년)에 준공하였다. 서진회관은 이름이 무경궁(武經宮)이며, 관제(關帝) 신위를 주로 공양하였다. 그래서 명칭이 관제묘(關帝廟) 또는 섬서묘(陝西廟)라 하였다.

2) 서진회관의 문화경관 특징

회관문화는 회관을 중심으로 하여 원적지에 대한 유대를 가지며, 특정한 역사 조건하에서 원래의 지역문화를 새롭게 입적해간 지역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즉 고향의 문화경관을 타향에서도 재현하는 것으로, 대대손손 전승되는 제사풍습, 절기풍습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 회관의 문화경관 요소 중에서 건축물과 원림은 회관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회관건축이 명청시기 중국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며, 기존의 관아건축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민거(民居)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민간의 공공건축이라고 명명하였다(蕭默, 1999).

서진회관의 면적은 3,451m²이며, 전형적인 중국건축의 평면 조합을 이루고 있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체로 보면 장방형으로 대칭형에 축선을 강조하고 있다. 주 축선상에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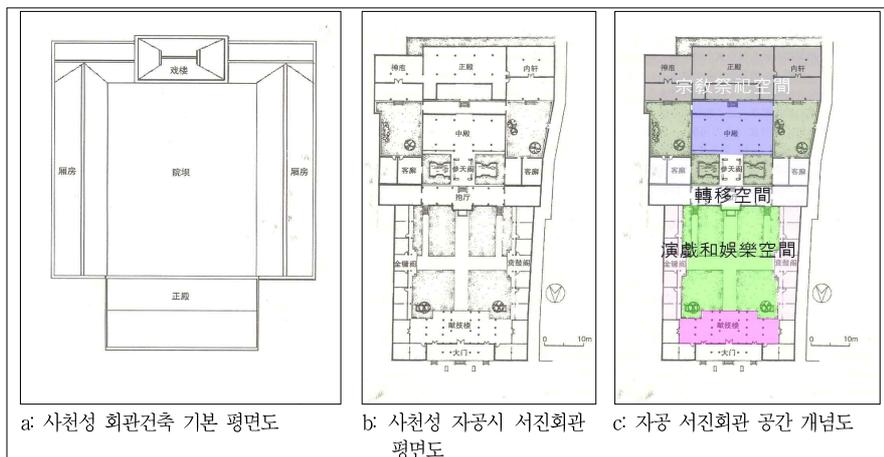


그림 1. 사천의 회관건축 기본형과 자공현의 적용사례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랑(廊)과 장(牆)으로 둘러싸여 있는 5개의 크고 작은 원자(院子)로 구성되어 있다. 서진회관의 주요 건축물에 부가된 장식물은 목조석각(木彫石刻)으로 만들어졌으며, 예술품과도 같은 높은 품격을 갖고 있다.

서진회관의 공간배치는 그림 1c에서와 같이 크게 3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연희오락공간, 전이공간 및 종교제사공간이 그것이다. 연희오락공간은 희대(戲臺)인 현지루(獻枝樓)를 중심으로 금용각(金鏞閣)과 분고각(賁鼓閣)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연극과 오락이 연출되는 공간으로 중심 원자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약 20m에 달하는 정방형 정원이 있다. 현지루의 높이를 2~3개 층(약 10m)이라고 한다면 높이와 바닥의 비가 1:2의 비례를 이루게 되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 크기가 된다. 따라서 연희를 관람하는데 편안한 공간 구성이 된다. 반면 종교제사공간은 정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공간으로 관제를 모시고 제사를 하는 공간이다. 특이한 점은 중전(中殿)과 연속적으로 구성되어져 전이공간인 대장부(大丈夫) 포청(抱廳)과 참천각(參天閣)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동선 유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연희오락공간이 개방형 공간이라면 이곳의 공간은 폐쇄형 공간을 이루고 있다. 즉 천정원락(天井院落)으로 구성되어져 남방 민거의 건축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신비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IV. 결론

사천지역의 회관이 번성하게 된 것은 명말청초의 혼란기에 대량의 이민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회관을 타향에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업적 이익을 위한 건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문화와 전통을 타향에 이식하고자 하는 강한 고향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자공의 서진회관을 사례로 하여 발생배경, 건축배치와 공간구성 등에 대하여 문화경관 요소로 파악하였다. 서진회관이 고향에서 타향으로 이민 오면서 고향의 문화경관 요소를 재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현대사회의 노마드 경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인용문헌

1. 서상완(1991) 明·清 교체기의 遺民에 관한 연구 -壬辰·丙子亂時 조선 유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蕭默 主編(1999) 中國建築藝術史 下. 北京:文物出版社.
3. 손세관(2001) 중국의 주거문화 下-길게 본 중국의 주택. 서울: 열화당.
4. 王雪梅, 彭若木(2009) 四川會館. 成都:四川出版集團 巴蜀書社.
5. 王鐸(2002) 中國古代花園与文化. 武漢:湖北教育出版社.
6. 이준갑(2007) 이주, 정착, 동화 -17C~20C 사천 객가의 궤적-. 동양사학 연구 제101집.
7. 李學勤, 徐吉軍 主編(1995) 長江文化史. 南昌:江西教育出版社.
8. 차미경(2008) 四川 연극의 형성과 공연 예술적 특성. 중국문화연구 제14집.
9. 崔隴鵬(2008) 四川會館建築與川劇. 華中建築 第26卷.